

완주동상 콜버스 운행방식 변경



고정노선형 콜제에서 거점형 콜제로

완주군은 동상면 콜버스(수요응답형) 운행방식을 2016년 9월 1일부터 기존의 고정노선형 콜제에서 거점형 콜제로 변경 운행한다고 밝혔다.

거점형 콜제란, 각 마을에서 거점으로 지정된 산천마을(대아수목원 입구)까지 콜버스를 이용한 후, 산천마을에서 시내버스를 갈아타 고산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군 실정에 맞는 일종의 맞춤형 지·간선제도를 의미한다. 2016년도 8월 31일까지 동상면에는 2대의 콜버스(수요응답형)가 운행중에 있다.

1호차는 동상면 내에서만 콜제로 운

영되고 있고, 2호차는 고산면에서 동상면까지 시내버스(300번)와 동일한 노선으로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운행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기존 1일 6회에서 7회로 증차하였고, 주로 아침 일찍 출근, 통학, 불일 보러 고산면으로 나가는 주민을 위해 찾차는 현재 운행 중인 노선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찾차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운행 중인 25인승 소형버스를 40인승 대형버스로 대체 할 예정이다.

현재 콜버스 이용요금은 500원이다. 동상면 내에서 콜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요금 그대로인 500원이지만, 시내버스 환승을 위해 거점(산천마을)까지 이동하는 경우에는 무료

로 콜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거민마을 김정웅씨는 "동상면에서 콜버스 도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등 이제는 필요한 교통시설이다"

이번 변경 운행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어서 바뀌지는 만큼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흥래 건설교통과장은 "주민의견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의 편의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동상면 콜버스 운행방식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주민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8월 11일에 실시한 이장단 설명회를 시작으로 마을 주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약주(藥酒) 한 잔 하세요

완주군 술테마박물관 기획전시

완주군 술테마박물관에서 '정성과 효능을 담은 술, 약주(藥酒)'를 주제로 기획전시가 오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린다.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기획전시는 약식동원과 기양주의 맥을 이어 온 약주에 대한 정의와 유래를 비롯하여 약성을 지닌 약술, 전통주로 계속되고 있는 21가지 명인주 등으로 꾸며진다.

쌀과 누룩을 발효시켜 만든 술덧을 맑게 거른 술인 약주라는 이름에는 조선시대 금주령 당시 병 치료를 위한 약으로 술을 마신다는 양반들의 광계를 비롯하여, 고급술로써 술의 고급화로 약주라 불렀던 당시 사회상이 담겨 있다.

전시되는 유물로는 약주 빚는



법을 정리한 문헌들과 함께 1960년대 출시된 최초의 과실주를 비롯하여 다양한 약용약주와 담금주가 선보인다. 이 가운데 약주 빚는 법이 수록된 '조선요리제법'은 우리나라 최초 근대 한식 요리서로서, 1917년 신문관에서 간행된 초간본이 전시되며, 발간 당시 '장안의 지가를 올렸다'는 기사를 낳을 정도로 많이 팔린 책이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진장소방서, 무주 안성서 '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18일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명천마을에서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를 통해 사랑과 나눔 서비스와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무진장소방공무원과 무주군 안성 남성·여성의용소방대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마을주민 건강의 위해 구급함, 기초의약품, 할압측정기, 생활필수품 등을 보급해주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무진장소방서와 안성 남성·여성의용소방대는 소방안전의식 확대와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시 인명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등을 교육했으며, 아울러, 조곡마을의 화재없는 안전마을 제막식과 이종인 마을이장을 '소방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화재예방과 안전수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했다.

방호구조과장 박재균은 "119안전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응급상황에서도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관내 업체, 지역사회공헌 협약 체결

진안군은 18일 관내 기업·의원의 대표들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뜻을 모으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항로 군수와 송상모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주)건보식품 박종현 본부장, (주)그린파이프 고영민 대표, (주)원광전자 황태연 대표, (주)한국고려홍삼조합 이연숙씨가 참석하였고, 문치과의원 문상빈 원장은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지역을 위한 좋은 일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역사회공헌활동의 동반자로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 일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후원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는데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송상모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앞장서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이러한 협약이 많은 업체와 체결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사회공헌 활동 후원금은 어려운 군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후원키로 하고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업추진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무료 실시

장수군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찾아가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서비스는 전문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올바른 전자제품 사용법과 대기전력 차단 방법 등 에너지 절감방안을 설명하고 진단 후 3개월간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요청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컨설턴트가 방문해 컨설팅

을 실시할 계획으로 가정, 상가, 학교를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희망하는 가정과 상가에서는 가까운 읍·면이나 군청 환경위생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군민의 주도적인 실천 노력이 꼭 필요한 분야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군 관리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오늘까지 6개 읍면 순회

무주군은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무주읍과 설천면 안성면 부남면 설명회를 마쳤으며 19일에는 무풍면과 적상면 주민들을 만나 군 관리계획 수립안을 설명하고 추진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무주군 건설교통과 조영자 도시개발 담당은 "군 관리계획은 무주군 공간구조 특성에 맞는 준비를 통해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아 수립한 것"이라며 "설명회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군정에 반영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군관리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모습.

진안군, 22일부터 읍지연습 실시

진안군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2016 읍지연습'을 실시한다.

읍지연습은 국가위기관리 종합연습으로 주민 안전을 위한 현장대응능력과 국민안보의식 강화에 목적이 있다.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 재난·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을 가정해 진안군을 비롯해 군부대, 경찰서,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22일 새벽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전시직제편성훈련, 행정기관 소산훈련, 전시주요현안과제 토의, 도상연습 토의, 주민참여 실재훈련, 심폐소생술 훈련, 방독면 착용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등이 실시된다.

24일 오후 2시에는 공습경보와 함께 진안군을 비롯한 전국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이 진행되는데, 교통통제 훈련은 5분간만 실시되며,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주민대피 훈련은 20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한 읍지연습에 적극적으로 동참, 협조해 주셔서 생활 속에서 안전과 안보의식을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보건소, 치매 고위험군 집중관리

진안군보건소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 고위험군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특기노인준점)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기초검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치매선별검사는 어르신들의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 기억력, 언어능력,

구성능력, 판단력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를 실시한 다음 인지가능 저하 의심자는 협약병원에 의뢰하여 정밀검진(진단검사와 감별검사)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치매로 확진 받을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도 월3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군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치매 고 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치매 조기검진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무료 검진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으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진안군은 강과 계곡을 찾아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강화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15개반, 45명의 물놀이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관내 물놀이 지역 전체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 및 휴일 비상근무 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물놀이 관리지역인 주천면 윤일암 반일암 등 10개소에는 안전관리요원, 지역자율방재단,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34명을 선발·배치하여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119이동안전체험센터 운영 등 체험 중심의 교육과 물놀이 안전캠페인, 전광판 등을 통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여름철 막바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 비상근무 체계와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 실시하여 단 한건의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며 119수상구조대원, 안전관리요원, 공무원 등에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